



能近怯遠症 · 能近怯近症

최 덕 수



1. 能近怯遠症(능근겁원증) : 近視眼

가까운 곳을 잘보고 먼곳을 잘 못보는 눈病을 말한다.

心陽의 衰弱으로 陽氣가 不足하고 陰이 成하거나 肝腎이 虛할 때 생긴다.

눈을 가늘게 뜨면 物體가 똑똑하게 보인다. 甚할때에는 눈앞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며 눈알은 앞으로 두드러져 나오고 눈꺼풀이 넓어 보인다. 또한 肝老(近性眼性疲勞) 神水交障(瞳孔性外斜視)이 올 수 있다. 心陽이 衰弱해서 온것은 補心益氣安神定志하는 方法으로 定志丸에 白茯苓을 加해 쓰고 肝腎이 虛해서 온것은 肝腎을 補하는 方法으로 杞菊地黃丸 補腎磁石丸 등을 加減하여 쓴다.

● 定志丸

人蔘, 白茯苓, 白茯神, 各 二錢

石菖蒲, 遠志 各 二錢

硃砂 一錢

● 杞菊地黃丸

熟地黃, 山藥, 山茱萸, 枸杞子 各 四兩

白茯苓, 牡丹皮, 澤瀉, 甘菊 各 二兩

● 補腎磁石丸

石決明, 甘菊花, 磁石, 肉蓯蓉 各 四兩

兔絲子, 製 一兩

* 症狀 : 肝腎氣虛血耗로 인한 能近怯遠証의 眼目昏暗遠視不明 視見黑花 漸成內障等症을 治한다.

* 用法 . 共이 粉末하고 雄雀十五雙을 去毛嘴足해서 淸鹽 二兩을 물 六升 과 함께 끓여 물이 다 되도록 끓인다. 그리고 搗攪해 가지고 藥末과 和均해서 梧子大의 丸을 만들어 公服에 服用함.

2. 能近怯近症(능원겁근증) : 遠視

먼곳을 비교적 잘 보고 가까운 곳을 잘못보는 眼病을 말한다.

腎陰이 不足하거나 肝腎이 虛해서 생기거나 날 때부터 體質이 虛弱해서 생긴다.

物體의 초점이 網膜뒤에 맺혀 먼곳에 있는 物體는 잘 보이나 가까운 物體는 안보이는 現狀이다.

一般的으로 眼에는 뚜렷한 變化가 없다. 甚할때에는 먼 곳도 잘못본다.

가까운 거리에서 冊을 보거나 精密한 作業을 계속하면 眼과 머리가 아프고 物體가 더 뿌옇게 보인다.

어린 아이에게 遠視가 있으면 쉽게 通睛(斜視)을 일으킬 수 있다.

腎陰不足으로 생긴 것은 腎陰을 補하는 方法으로 地黃丸을 加減해서 쓰고 體質이 虛弱해서 온 것은 肝腎을 慈養하고 補하는 方法으로 杞菊地黃丸을 加減해서 쓰고 六味地黃丸에 牡蠣粉을 加해서 쓴다.

※ 眼鏡교정도 한다.

■ 能近怯遠症 能近怯近症

● 地黃丸

熟地黃, 天門冬 各 四兩

枳殼, 甘菊 各 二兩

－ 熟地黃 代 生地黃을 넣을 수 있다.

* 症狀 : 먼곳에 있는 物體는 잘 보이나 가까운 物體는 잘 보지 못한다.
老視 遠視 復視 等 때 用한다.

(궁전한약방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7-25 ☎ 063)254-6001)